

LG화학, 美 아베오 인수... “글로벌 톱30 제약사 될 것”

항암시장 특화 역량 갖춘 기업
항암 분야 등 4개 이상 신약 목표
신약 파이프라인 美 상업화 가속

LG화학이 20일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고, 항암 중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다.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해 항암, 대사질환 분야 등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출시하고 글로벌 톱 30 제약사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LG화학은 18일 아베오 인수를 위해 미국 보스턴 소재 생명과학 자회사인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센터(LG CBL)’에 약 7072억원을 출자했으며, 20일 최종 인수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베오는 LG화학의 종속회사로 편입되며, 자체적인 미국 항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처럼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운영된다. 아베오는 2002년 미



신철 LG화학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마이클 베일리 아베오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 손지웅 사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이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설립, 임상 개발·허가·영업·마케팅 등 항암시장에 특화된 핵심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다.

아베오는 2021년 신장암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포티브다(FOTIVD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약 출시 2년째인 지난해 1300억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한 2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증권사들은 포티브다의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2027년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베오는 현재 포티브다의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이며, 두경부암 치료제 등 후속 항암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화학은 아베오 인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 시장인 미국에서 항암 분야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과학사업본부가 개발하는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을 아베오로 이관해 미국 상업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LG화학은 세포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등을 전임상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이다.

초기 연구 및 생산공정 개발 등에 강점이 있는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유망 항암 물질 발굴, 전임상 및 초기 임상, 상업화 공정개발 등을 담당하고, 아베오가 항암 파이프라인 후기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구조로 항암사업을

운영한다. 미국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약 250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LG화학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바이오사업 연구개발(R&D)에 총 2조원 규모를 투자해 2030년까지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뇨, 백신, 성장호르몬, 항암제 등 기존사업에서의 매출 확대를 통해 2027년 2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 성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신철 부회장은 “아베오를 항암사업 개척 및 성장을 이끌 미래 바이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해 ‘항암 중심의 글로벌 톱 30 제약사’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장·두피 마이크로바이옴-탈모 연관성 밝혀 한국콜마 “소재 발굴 앞장”

‘미생물학프론티어’에 논문 게재
결과 토대 탈모 도움 화장품 개발

한국콜마가 장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과 탈모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며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한국콜마는 인체의 장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과 안드로겐성(남성호르몬) 탈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SCI급 저널인 ‘미생물학 프론티어(Frontier in microbiology)’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콜마는 이번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장과 두피를 구성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탈모 유무뿐 아니라 진행 단계별로도 장과 두피에 특이적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이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을 경우, 정상인 대비 장과 두피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의 상관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과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이 안드로겐성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번 성과는 한국콜마가 2020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장내 균총과의 상관관계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다. 경북대학교 분자미생물학연구실 신재호 교수팀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술 및 다양한 생물정보학 기반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콜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적용해 탈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탈모의 원인으로 밝혀진 장과 두피의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신뢰도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탈모 조절이 가능한 소재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도미노피자 설 맞이 전메뉴 포장 할인

도미노피자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기념해 모든 메뉴를 포장 할인하는 ‘설프라이즈’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21~24일 오프라인 및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웹, 어플) 등 포장 주문 시 모든 피자(M/L)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1회 2판까지, 오프라인 1회 4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드디시 반값 할인과 900원 딜과 증복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도미노피자는 설 연휴를 맞아 모든 피자의 1+1 혜택을 포함해 새롭게 출시한 아보카도 새우 피자 주문 시 클래식 피자를 1판 더 제공하며, 프리미엄 피자 포장 주문 시 NEW 치즈 볼로네즈 스파게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서울장수, 해외서 고성장세 수출 실적 연평균 8% 증가

서울장수가 최근 5년간 해외수출 실적 연평균 8% 성장을 기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탁주제조협회 산하 법인인 서울장수는 2010년 설립과 동시에 해외수출을 시작해 미국·호주·중국·일본·캄보디아 등 30여 개국에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 중이다.

대표적인 수출 효과 상품은 ‘달빛유자’, ‘월매 캔 막걸리’, ‘장홍삼 막걸리’ 등으로 이들 상품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전년대비 각 41%, 101%, 100% 큰 폭으로 신장했다. 서울장수는 특색 있고 달달한 각테일 콘셉트의 막사(막걸리+사이다) 제품 수출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꾸준한 잇몸관리... 전신질환 위험 감소”

동국제약, 잇몸건강24 캠페인

50대 이상부터 잇몸병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잇몸병은 고혈당·당뇨, 만성 스트레스·우울증, 심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등의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잇몸약 인사돌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은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 건강에 필수적인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잇몸건강24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잇몸 건강이 악화되면 잇몸이 붓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잇몸의 기본적인 기능인 음식을 잘 씹는 것이 어려워진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소화 작용과 영양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또 부모님이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잇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잇몸병은 잇몸 같은 치은(잇몸)에서 발생하여 심한 경우 잇몸 속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파괴된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셀프메디케이션은 ▲올바른 칫솔질하기 ▲치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의약품으로 잇몸 추가 관리하기 등 기본 구강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칫솔질과 치과 검진을 기본으로, 인사돌플러스와 같은 잇몸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림대성심병원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참가자 모집

생활습관·행동교정 프로그램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고도비만 아동청소년 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인 ‘아이캔(ICANN)’의 참가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아이캔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 관리를 위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 연세대 연구진이 함께 기획한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생활습관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이며, 박경희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총 책임을 맡고 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아이캔은 지금까지 세 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총 54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비만 정도

의 감소, 체성분 등 각종 대사질환 지표의 호전을 경험했다.

이번 아이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만10~14세)까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아동 청소년이며,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신체계측, 혈액 검사, 생활습관 평가, 영양 평가, 행동 평가, 체력측정 등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위험요인을 진단받을 수 있다. 이후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을 거쳐 18개월간 앱을 기반으로 한 운동과 영양교육, 생활습관모니터링과 행동교정 등 다양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20일(금)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1℃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44 | 해질 / 17:42

연천 -5/-1, 동두천 -5/-1, 가평 -5/-1, 양평 -5/-1, 용인 -1/-1, 평택 -1/0, 수원 -1/-1, 인천 -3/-2, 파주 -5/-2, 백령도 -3/-3, 서울 -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